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임은의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the Self-esteem and Child Career Support Behavior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Eun-Eui Yim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Far East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부모효능감이 자녀진로지원행동(지지, 간섭, 관여부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7차년도 다문화청소년-학부모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1,188명의 결혼이주여성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진로지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존감($\beta=.277$), 부모효능감($\beta=.134$)이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자녀진로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어머니, 결혼이주여성, 자존감, 부모효능감, 자녀진로지원행동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the relation between the self-esteem and child career support behavior(encourage, meddle, non-involvement)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this end, data from the 7th year's multicultural youth-parent panel were used, an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data of 1,188 married immigrant women.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elf-esteem ($\beta=.277$) and parental efficacy ($\beta=.134$) were positively significant as factors affecting the child career support behavior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parental efficacy was found to provide partial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hild career support behavior.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parental efficacy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conduct desirable child career guidance.

Key Words :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Married immigrant women, Self-esteem, Parenting efficacy, Child career support behavior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사람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능력위

주 사회'에서는 직업 자체가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받기에 현대인들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미래 사회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를 맞으면서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

*This paper has been studied with the support of Far East University in 2020(FEU2020-R24)

*Corresponding Author: EunEui Yim(empower@kdu.ac.kr)

Received September 25,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Revised October 3, 2020

Published November 28, 2020

업을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을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삼고 있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학지도, 대학생 대상으로 진로지도, 대학생 대상으로 진로지도 실시했던 이원화된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실질적으로 진로지도 제공하여 미래 직업에 요구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해 가는 가운데 특별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지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학령인구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3.04%,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1.22%,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0.59%로 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2]. 이들의 규모가 점차 커가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정체성 혼란, 의사소통 어려움, 빈곤과 사회적 차별로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로준비와 진로선택에 있어서 일반가정 자녀보다 훨씬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김영은 외(2010)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은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직업인식 수준과 직업포부 수준이 낮으며,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으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일찍부터 직업 준비 활동을 도울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한 체계로 가정, 학교, 사회환경적 요소를 꼽을 수 있지만, 이중 가정에서의 어머니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5-7]. 청소년들은 진로를 주로 부모와 의논하며, 진로 선택 및 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8],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의 경우 한국의 진로발달체계를 잘 모르고, 남편으로부터 자녀 교육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해 매우 취약한 청소년 지지체계라 할 수 있다[9,10].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6~24세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 부모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40.9%가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바람직한 진로지원행동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11].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은 지지행동, 간섭행동, 관여부족행동으로 구분된다[12]. 지지행동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적절한 조언과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도와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간섭행동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일방적으로 선택, 결정하고, 자녀의 진로준비행동을 주도하여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여부족행동은 자녀의 진로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으로 대응함으로써 자녀가 적절한 진로발달을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13]. 부모의 진로지원행동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높은 지지행동은 자녀의 진로탐색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높은 관여부족행동은 자녀의 진로탐색활동과 진로적응활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자녀의 지도에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관여부족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5]. 그리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지지행동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진로결정 수준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6].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준거 기준으로 자존감을 기초체계로 삼고 있는데, 자존감이란 자신 스스로의 유능감과 가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17].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이 가치 있으며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함과 아울러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하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열등감과 스트레스가 높고[18], 타인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였다[19]. 대체로 자존감은 영유아기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형성되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타인 및 집단의 반응을 통해 조절되고[20], 성공 또는 좌절 경험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어머니의 자존감은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태도,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22-24].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은 새로운 생활 적응과 자녀 양육에 중요한 요인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들은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두고 독립변수를 밝힘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을 독립변수로 두고 자존감과 청소년 자녀의 진로지원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높은 부모효능감을 보여주고[22, 25], 또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녀가 사회적 발달에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26]는 연구결과를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시켜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고, 긍정적인 진로지원행동을 할 것으로 추론된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27] 부모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하여 이를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것으로 대상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효능감 또는 부모효능감으로 구분된다[28]. 다문화 사회 환경에서 부모효능감은 특정 문화권 내에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로 문화적응의 지표로도 고려되며[29], 긍정적인 자녀양육 수행과 건강한 자녀의 발달과 사회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30].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즐기고 온정적이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역량 발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1-32]. 결혼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습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3].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이 자녀발달의 핵심 요소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낮은 양육 참여, 육아 정보 부족, 모국과는 다른 양육방식으로 인해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4]. 특히 부모 효능감은 자녀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변하는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효능감이 더욱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35].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서 학습지도 및 학교생활 조력 등 새로운 역할들이 기대되는데, 한국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 부족, 학습지원의 어려움, 지지체계 부재 등으로 부모효능감이 더욱 낮아진다는 것이다[36]. 이처럼 자녀가 초기 청소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자녀 지도에서 상실감과 실패를 겪은 결혼이주여성은 진로지도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다문화 자녀의 연령이 곧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가 본격화되면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발달 연구와 결혼이주여성의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37],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진로지원행동 연구는 소수만이 발견된다. 이런 가운데 연은모·최효식에 의하면 부모효능감은 진로관련행동 중 지지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관여부족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간섭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향후 자녀 진로지도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다각적인 차원에 검토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원활한 직업이행과 다문화 어머니의 진로지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부모효능감을 통하여 바람직한 진로지원행동을 형성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자녀진로지원행동, 부모효능감 수준을 확인한다.
-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자녀진로지원행동, 부모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설계

2.1 연구모형 및 가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진로지원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효능감이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다음 Fig.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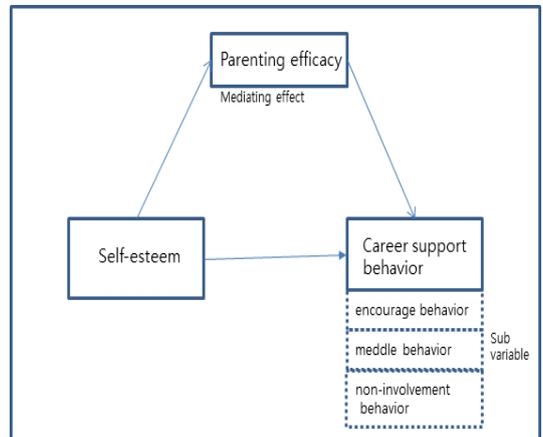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가설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은 자녀진로지원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자녀진로 지원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제7차 다문화청소년 패널 중 학부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은 다문화청소년의 교육과 발달 상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로 다문화청소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9년 12월의 7차년도 패널을 활용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패널 중 출신국적이 한국이 아닌 결혼이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3 측정도구

2.3.1 자녀진로지원행동

다문화청소년패널 7차 조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진로지원행동은 조아라 외 [38]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패널에서 활용한 자녀진로지원행동은 지지행동 3문항, 간섭행동 3문항, 관여부족행동 3문항의 3요인,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지행동 문항은 '자녀가 관심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격려한다',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 조언해 준다', '다양한 진로 분야의 체험기회에 대하여 자녀에게 말한다'이다. 간섭행동 문항은 '자녀 진로를 정할 때 내 생각대로 하기를 바란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진로를 자녀가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자녀 진로를 특정 방향으로 강요한다'가 해당된다. 관여부족행동은 '너무 바빠서 자녀진로 준비를 도와줄 수 없다', '자녀진로에 관심이 없다'이다. 자녀진로지원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지지행동과 간섭행동과 관여부족행동의 총합 점수를 자녀진로지원행동으로 평가하였는데, 이중 간섭행동과 관여부족행동은 역코딩 처리했다.

본 연구에서 자녀진로지원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5$ 이었고, 하위요소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지지행동 Cronbach's $\alpha = .78$, 간섭행동 Cronbach's $\alpha = .69$, 관여부족행동 Cronbach's $\alpha = .75$ 로 나타났다. 참고로 표본수가 다른 6차년도 다문화청소년패널을 활용한 연은모·최효식(2019) [13]의 연구에서는 지지행동 $\alpha = .86$, 간섭행동 $\alpha = .75$, 관여부족 $\alpha = .79$ 이었다.

2.3.2 자존감

독립변수인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Goopersmith의 자아개념 척도를 박난숙·오경자(1992)[39]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등이 포함되어 총 9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자존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일부 문항은 역코딩 처리한 가운데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로 나타났다.

2.3.3 부모효능감

매개변수로 활용한 부모효능감은 Gibaud- Wallston & Wandersman[40]의 부모역량척도를 번안 및 수정한 신숙재[41]의 부모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효능감은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여 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등 9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부모효능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로 나타났다.

2.3.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제7차 다문화청소년-학부모 패널의 통계분석은 SPSS 24.0을 이용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 통계적 배경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인원 및 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척도의 내적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 알파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수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존감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진로지원행동과 그 하위요인에 미치는 인과관계 파악을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간의 관계를 부모효능감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 매개검정과 인과관계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벨 테스트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7차 다문화청소년_학부모패널의 결혼이주여성은 총 1,18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n=1,188)

variable	range	frequency(%)
Education degree	middle School graduation or lower	126(10.6%)
	high school graduation	562(47.3%)
	college	313(26.3%)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187(15.8%)
marriage status	marriage	1,083(91.1%)
	divorce	45(3.8%)
	separation	14(1.2%)
	bereavement	46(3.9%)
living area	large city	291(24.5%)
	small-medium city	526(44.3%)
	town	371(31.2%)
country of origin	China(Korean)	214(18.0%)
	China(Han, etc)	87(7.3%)
	Vietnam	28(2.4%)
	Philippines	322(27.1%)
	Japan	428(36.0%)
	Thailand	49(4.1%)
age	etc.	60(5.1%)
	minimum	27
	maximum	66
	mean	46.58
mean of household income monthly	std.	5.06
	minimum	0
	maximum	12,000,000 won
	mean	2,670,000 won
std.	119.621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47.3%)이 가장 많고, 전문대 졸업(26.3%), 대학교 졸업 이상(15.8%), 중학교 졸업 이하(10.6%)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및 동거 91.1%, 사별 3.9%, 이혼 3.8%, 별거 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중소도시 44.3%, 읍/면 31.2%, 대도시 24.5%의 거주 분포 양상을 보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은 일본 36.0%, 필리핀 27.1%, 중국 조선족 18.0%, 조선족 외 중국 7.3%, 기타 5.1%, 태국 4.1%, 베트남 2.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의 평균값은 46.58, 표준편차 5.064이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값은 267.7만원, 표준편차 119.62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변수간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부모효능감, 자녀진로지원행동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또한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인 지지행동, 간섭행동, 관여부족행동을 포함시켰다.

자존감, 부모효능감, 자녀진로지원행동의 모든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294 ~ .606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측정 변인들 간에 .8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는 부모효능감과 간섭행동만 유의하지 않았고, 자존감과 부모효능감에 대해 지지행동과 관여부족행동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1	2	3	3-1	3-2	3-3
1	1					
2	.606**	1				
3	.354**	.294**	1			
3-1	.245**	.415**	.428**	1		
3-2	-.173**	.019	-.598**	.205**	1	
3-3	-.254**	-.215**	-.831**	-.193**	.296**	1
Mean	3.80	3.58	2.95	2.89	2.11	1.92
St d.	.539	.519	.397	.525	.632	.698

1.self-esteem, 2.parenting efficacy, 3.child-career support behavior, 3-1.encourage behavior 3-2.meddle behavior, 3-3.involvement behavior

*p<.05, **p<.01, ***p<.001

변수의 평균은 자존감이 3.8/5(표준편차 .539), 부모

효능감이 3.58/5(표준편차 .519), 자녀진로지원행동이 2.95/4(표준편차 .397)이었다.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 평균값은 지지행동 2.89/4, 간섭행동 2.11/4, 관여부족행동 1.92/4순으로 나타났다.

3.3. 자녀진로지원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부모효능감이 자녀진로지원행동과 그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3,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값이 .668, 분산 팽창요인 값이 1.49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 자존감은 자녀진로지원행동에 대해 $\beta=.277$ 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t=6.942, p<.001$).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이들의 자녀진로지원행동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효능감은 자녀진로지원행동에 대해 $\beta=.134$ 로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t=3.375, p<.01$). 즉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진로지원행동 또한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n child-career support behavior

	B	SE	β	t	allowance	VIF
self-esteem	.201	.029	.277***	6.942	.668	1.497
parenting efficacy	.102	.03	.134**	3.375	.668	1.497
(Constant)	16.28	.919		17.72		

* $p<.05$, ** $p<.01$, *** $p<.001$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은 자녀진로지원행동 중 지지행동에 유의하지 않고, 부모효능감은 $\beta=.421$ 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t=12676, p<.00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은 자녀진로지원행동 중 간섭행동에 대해 $\beta=-.292$ 로 부적으로 유의한 반면에($t=-8.231, p<.001$). 부모효능감은 $\beta=.196$ 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t=5.527, p<.001$).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간섭행동은 낮지만,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간섭행동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은 관여부족

행동에 $\beta=-.194$ 로, 부모효능감은 관여부족행동에 $\beta=-.103$ 로 둘다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진로에 대한 관여부족행동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부모효능감의 자녀진로지원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13.7%로 나타났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n subfactor of child-career support behavior

Variable	encourage behavior		meddle behavior		non-involvement behavior	
	β	t	β	t	β	t
self-esteem	-.01	-3.12	-.292***	-8.23	-.194***	-4.7
parenting efficacy	.421***	12.68	.196***	5.53	-.103*	-2.49

* $p<.05$, ** $p<.01$, *** $p<.001$

3.4.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자존감은 1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였고($\beta=.606,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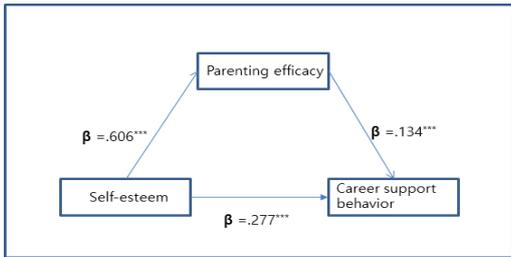
Table 5. Mediation Analysis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self-esteem and child-career support behavior

step	variables	B	SE	β	t
1 step	self esteem → parenting efficacy	.583	.022	.606***	26.216
2 step	self esteem → child-career support behavior	.258	.024	.354***	10.802
3 step	self esteem → child-career support behavior	.201	.029	.277***	6.961
	parenting efficacy → child-career support behavior	.102	.030	.134**	3.375

* $p<.05$, ** $p<.01$, *** $p<.001$

2단계인 독립변인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이 자녀진로지원행동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하였다($\beta=.354, p<.001$). 3단계에서 자존감과 양육효능감을 동시

에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자녀진로지원행동을 예측한 결과, 매개변인인 부모효능감이 자녀진로지원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1단계에 비해서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34, p < .01$), sobel test 결과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를($Z = 3.37, p < .001$)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참고).



* $p < .05$, ** $p < .01$, *** $p < .001$

Fig. 2.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self-esteem and child-career support behav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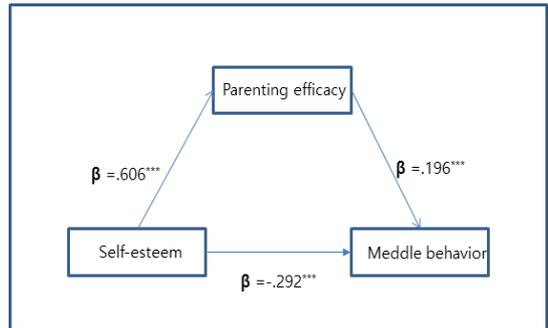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하위변인들 간에 있어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Table 4의 회귀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지지행동을 제외한 간섭행동과 관여부족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Table 6. Mediation Analysis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self-esteem and meddle behavior

step	variables	B	SE	β	t
1 step	self esteem → parenting efficacy	.583	.022	.606***	26.216
2 step	self esteem → meddle behavior	-.023	.004	-.173***	-6.062
3 step	self esteem → meddle behavior	-.038	.005	-.292***	-8.231
	parenting efficacy → meddle behavior	.027	.005	.196***	5.527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처럼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간섭행동과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sobel test 결과 부분 매개효과를($Z = 5.29, p < .001$)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참고).



* $p < .05$, ** $p < .01$, *** $p < .001$

Fig. 3.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self-esteem and meddle behavior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관여부족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Table 7), sobel test 결과 부분 매개효과를($Z = -2.65, p < .01$)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참고).

Table 7. Mediation Analysis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self-esteem and non-involvement behavior

step	variables	B	SE	β	t
1 step	self esteem → parenting efficacy	.583	.022	.606***	26.216
2 step	self esteem → non-involvement behavior	-.036	.005	-.254***	-7.484
3 step	self esteem → non-involvement behavior	-.028	.006	-.194***	-4.701
	parenting efficacy → non-involvement behavior	-.015	.006	-.103*	-2.49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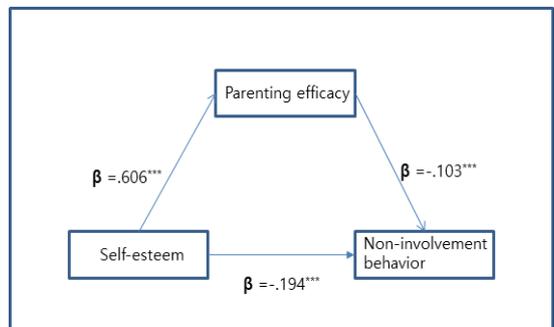


Fig. 4.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self-esteem and non-involvement behavior

4. 논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제7차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패널에 반영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특성은 학력수준의 경우 고졸이 47.3%, 결혼상태인 경우가 91.1%, 중소도시 거주가 44.3%, 출신국가의 경우 일본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6.58세, 평균 월 가구소득은 267.72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중국이 36.8%로 가장 많고 일본의 경우 8.6%임과 비교해 볼 때 다문화청소년-학부모 패널은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부모효능감,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평균수준을 분석한 결과, 자존감의 평균이 3.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평균이 2.95/4, 부모효능감의 평균이 3.58/5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진로지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녀진로지원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일반가정 어머니와 직접 비교하는 선행연구가 드물어 일반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의 교육 지도 중 특이나 진로지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자녀진로지원행동 하위요인으로는 지지행동의 평균이 2.8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간섭행동의 평균이 2.11/4, 관여부족행동의 평균이 1.92/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진로지원행동 중 가장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지지행동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여성들이 자녀진로지도를 수행함에 있어 간섭행동과 관여부족행동의 전략보다는 지지행동의 전략이 보다 효과적인 부모역할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부모효능감, 자녀진로지원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진로지원행동은 자존감 및 부모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존감 및 부모효능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간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회귀분석 결과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진로지원행동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녀진로지원행동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1>과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진로지원행동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2>이 채택되었다. 이는 일반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M. Y. Sim, S. H. Jeong & S. K. Hwang(2013)[25]와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E. M. Yeon. & H. S. Choi(2019) 연구[13]와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독립변인과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 간의 인과관계 검증에서는 자존감과 지지행동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부모효능감과 지지행동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존감과 간섭행동은 부적으로, 부모효능감과 간섭행동은 정적으로 유의했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간섭행동은 낮아짐에 반해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간섭행동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관여부족행동은 자존감과 부모효능감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관여부족행동은 낮아진다고 해석된다. 이는 E. M. Yeon. & H. S. Choi(2019) 연구와[13] 유사한 결과이나, 단 부모효능감과 관여부족행동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점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진로지원행동 분석 결과에서 부모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부모효능감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더 나아가 부모효능감은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인 간섭행동과 관여부족행동의 관계에서도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앞서 인과관계 결과 보고에서 밝혔듯이 지지행동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없었는데, 여기에는 자녀의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둘 때 통계적인 원인이 규명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지행동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없고, 간섭행동과 관여부족행동에서만 매개효과를 보인 점에 대해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부모효능감, 자녀진로지원행동의 수준 뿐만 아니라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별 수준까지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부모효능감의 매개역할을 규명하였다.

부모의 자녀진로지원행동 연구들이 일반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매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자녀진로지원행동의 세부적인 요인까지 다뤘다는 의의가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국내 일반 가정처럼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으나 한국의 교육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장애직업이나 진로문제에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20년이 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성장하여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맞춤형 진로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자녀의 진로지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가운데 본 연구가 밝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부모효능감은 진로지원행동에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부모효능감은 진로지도에까지 시너지를 발휘하는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진로교육에 앞서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한 진로 코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의식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바람직한 청소년 자녀의 진로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망의 핵심적인 지지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자녀의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기관에 따라 진행 여부 및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기본정책계획에 다문화가정 부모님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발달 지원을 포함시켜 실천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진로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커리어넷의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하거나 웹 개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논문의 목적인 부모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어머니의 자존감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진로지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한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 간에는 지지행동은 지지받지 못하였고, 간섭행동과 관여부족행동은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본 논문이 회귀분석을 통해 밝히는 하위요인의 인과관계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진로지원행동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해 다문화 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높이는데 필요한 부모교육 뿐 아니라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환경조성이 함께 이뤄질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연구주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지원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에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관련 변인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후속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구체적인 자녀진로지원행동을 보다 면밀하게 살필 지점을 제시했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향후 다양한 변인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진로지원체계를 밝혀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Markovits, Daniel. (2019). *The Meritocracy Trap : How America's Foundational Myth Feeds Inequality, Dismantles the Middle Class, and Devours the Elite*. Penguin Press.
- [2]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19). 2019 Education Basic Statistics.
- [3] D. J. Park. (2019). Analysi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Support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9), 175-184. DOI:10.22156/CS4SMB.2019.9.9.175.
- [4] Y. E. Kim, C. Y. Jeong & G. N. Lee. (2012).

- Occupational Perceptions and 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 Occupation Aspir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Society of Practical Education*, 25(4), 169-194.
- [5] W. D. Kang & G. Y. R. Ahn. (2015). The Influence of parental nurturing attitud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reparedness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Psychology Society: Health*, 20(4), 739-764.
DOI : 10.17315/kjhp.2015.20.4.003.
- [6] J. Y. Yoon & E. J. Huh. (2017).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of the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student'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3(6), 775-798.
DOI : 10.2415/jpec.2017.23.6.775
- [7] S. T. Song & H. C. Choi. (2020). Effects of Ego-Resillience, Family Func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and Mental Health of the Youth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2), 116-125.
DOI : 10.22156/CS4SMB.2020.10.02.116.
- [8]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4). Career Education in School Survey.
- [9] J. Y. Song & M. J. Park. (2015). The influence of Abuse from parents on Adolescent in School Life Adapta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Forum for the Youth and Culture*, 43, 57-83.
DOI : 10.17854/ffyc.2015.07.43.57.
- [10] K. N. Park & J. M. Kim. (2019). Relationship between parent support and self-factor, emotional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5(2), 595-616.
- [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2018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 [12] L. Dietrich & B. Krache.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109-119.
- [13] E. M. Yeon. & H. S. Choi. (2019). Latent Profile Analysis i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Children's Career, Psychological and Academic Outcom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8), 305-325.
DOI : 10.22251/jlcci.2019.19.8.305.
- [14] Y. Guan et al. (2018). Parents' career values, adaptability, career-specific parenting behaviors, and undergraduates' career adaptabilit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6(7), 922-946.
- [15] H. Y. Cho. (2018). A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s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 academic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vocational aspira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ul.
- [16] H. R. Jang & R. H. Lee. (2019).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School Social Worker*, 47, 189-218.
- [17]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8] J. G. Bachnan & P. M. O'Malley. (1983). Self-Esteem;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ages 13 and 23, *Developmental Psychology*, (2), 257-268.
- [19] Y. O. Han & M. H. Kim. (2003). The Relationship on the Maternal Psychological Environment and Child Behavioral Problem: A Cross-cultural Study. *Korean Society of Children*, 24(1), 47-59.
- [20] M. R. Leary. (2005). Sociometer theory and the pursuit of relational value: Getting to the root of self-esteem.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6, 75-111.
DOI : 10.1080/10463280540000007
- [21] U. Orth, K. Trzesniewski & R. Robinson. (2010). Self-Esteem Development From Young Adulthood to Old Age: A Cohort-Sequential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4), 645-658.
DOI : 10.1037/a0018769
- [22] P. H. Mussen. (199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7th ed)*. New York: Happer & Row.
- [23] Branden Nathaniel. (1994). *Self-Esteem Every Day: Reflections on Self Esteem and Spirituality*, Fireside Book.
- [24] J. Y. Yoon & E. J. Huh. (2017).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of the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student'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3(6), 775-798.
DOI:10.24159/joec.2017.23.6.775

- [25] M. Y. Sim, S. H. Jeong & S. K. Hwang. (2013). The Effect of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on School Adapt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er*, 26, 99-122.
- [26] H. O. Sim. (1998). Depression among Late-Elementary Children: Relationships with Daily Hassles, Self-Esteem & Social Skill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6), 133-144.
- [27] O. M. Teti & D. M. Gelfand.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28] A. Bandur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29] D. J. Williams, Dancik B. P. & Pharis R. P. (1987). Early progeny testing and evaluation of controlled crosses of Black spruce. *Canadian Journal of Forest Research*. vol. 17. 1442-1450.
- [30] C. L. Costigan & C. M. Koryzma. (2011).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among immigrant Chinese parents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183-196.
- [31] A. S. Wo & B. S. Park. (2019).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Multicultural expropriation of University student According to Community Spirit. *Journal of Convergency for Information Technology*, 9(8), 189-197.
DOI : 10.22156?CS4SMB.2019.9.8.189.
- [32] E. E. Yim. (2019). The Effect of Child interaction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of Career-interrupted Women: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y*, 17(12), 13-22.
DOI:10.14400/JDC.2019.17.12.013
- [33] O. S. Cho & H. S. Bang. (2018). The Effects of Daily Life Stress on the Learning Care Style of Multicultural Par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arent 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y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DOI:10.22156/CS4SMB.2018.8.4.173.
- [34] H. S. Choi. Factors affecting mothers' parenting efficacy in multicultural families: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 *Korean Society of Open Infancy Education*, 22(2), 61-81.
- [35] C. B. Ballenski & A. S. Cook. (1982).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competence in managing selected parenting tasks.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31(4), 489-494.
DOI : 10.2307/583923
- [36] Y. H. Lim, B. H. Lee & I. T. Kwon. (2014). A Phenomenological Study on Married Immigrant Mother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Parental Role, *Journal of Open Education*, 22(4), 301-324.
- [37] B. H. Kim & Y. J. Park. (2010). A Study on Guide Method by Career Guide Goal of the Youth, *Counseling and Guide*, 45, 65-82.
- [38] A. R. Jo, E. J. Yang & S. K. Yoon. (2013). Validating the Korea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Korean Psychology Society: School*. 10(3), 389-408.
DOI : 10.16983/kjsp.2013.10.3.389
- [39] N. S. Park & K. J. Oh. (1992). Effects of Methylphenidate Treatment on Cognitive Behavioral Symptoms and Social, Academic & Emotional Adjustment of ADHD Childr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1), 235-248.
- [40] J. Gibaud-Wallston & L. P. Wandersman.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Toron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40] S. J. Shin. (1997).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on the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Yonse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임은 의(Yim, Eun Eui)

[정회원]



- 1992년 2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관심분야 : 사회적경제, 다문화복지,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가족복지
- E-Mail : empower@kdu.ac.kr